

구글,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Sumitomo·GE와 공동으로 1억달러 투입 ... 2012년 845MW 완공

구글(Google)이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에 1억달러를 투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에 1억달러(약 1091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4월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국 오리건에 건설되는 세계 최대 세퍼드 플랫 풍력발전소는 2012년 완공 예정으로, 845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2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퍼드 플랫 프로젝트에는 구글 외에 GE와 일본 Sumitomo 등이 참여하며,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앞서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도 1억6800만 달러(약 1834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에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총 3억5000만달러(약 38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21>